

맥도날드화와 기독교 세계관

김선일¹⁾

국문초록

맥도날드화는 맥스 베버의 합리적 관료제라는 이론을 현대 기술문명과 소비주의를 바탕으로 한 패스트푸드점의 원리를 따라 새롭게 적용한 사회 분석 틀이다. 조지 리처는 맥도날드가 형식적 합리성을 발전시켜주는 4가지 원리인 효율성, 계산가능성, 예측가능성, 통제 등을 통해 서구 사회를 비롯한 전 세계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가장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매장인 맥도날드의 이름과 운영원리를 빌려온 것이다. 맥도날드화는 더 나아가 실제적 내용과 의미가 없는 세계화로 발전되고 있으며, 이러한 맥도날드화의 흐름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예외 없이 침투해있다. 특히 교회의 사역과 삶에 대한 진단은 맥도날드화의 원리에 의해서 상당히 설득력있게 행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행동 영역의 문제라기보다는 세계관의 문제이다. 맥도날드화의 배경이 되는 신념들은 기독교 세계관에 의해서 다시 조명되며 비판되어야 맥도날드화된 삶의 양식을 넘어서는 기독교적 제자도와 실천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주제어: 세대, 라이프스타일, 문화, 문화선교, 한국사회

I. 서론

세계관은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창문이라 할 수 있다(신국원, 2007:19). 창문이 각자의 위치에서 바깥세상을 보는 경로이듯,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구조와 방향을 해석한다. 세계관에 대한 이해와 연구는 주로 인류문명사에 형성된 철학사상이나 종교적 신념이라는 거시적 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세계관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어떠한 동력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유물론이나 자연주의와 같은 거시적인 사상으로서의 세계관 뿐 아니라, 미시적 세계관이 필요하다. 미시적 세계관은 다른 말로 하면 어느 특정한 시대나 집단 속에서 형성된 문화라 할 수도 있다. 즉, 거시적 세계관을 심층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낸 세계와 그 세계에 대한 이해를 말한다.²⁾ 우리가 사는 현 사회를 해석하는 다양한 세계관이 존재할 수 있으며, 삶의 여러 국면들을 섬세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요청될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 연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인도하려는 목적을 지닌다면, 이러한 미시적 세계관을 분별하고 진단하는 것은 매우 실천적인 역할에 해당될 것이다.

본고는 오늘날의 기술소비 사회에서 현대인의 삶을 통제하는 미시적 세계관이라 할 수 있는 ‘맥도날드화’를 분석하며,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대응을 논하고자 한다. 미국의 사회학자 조지 리처가 창안한

1)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실천신학 교수

2) 신국원은 자연에서 세계관으로, 세계관에서 문화로 사람들의 삶이 조성되는 현상을 말한다(신국원, 2007: 28). 필자는 이를 세상과 인생을 향한 자세를 좀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세계관의 하위 개념으로 미시적 세계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맥도날드화’는 현대 사회의 대표적 사조들인 기술주의, 합리주의, 관료주의, 소비주의 등이 결합되어 사회의 시스템들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맥도날드라는 패스트푸드 식당은 미국을 대표하는 체인점으로 세계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는 단순히 미국식 햄버거 맛의 확장이 아니다. 패스트푸드 식당의 운영 방식과 소비자들이 맥도날드와 같은 체인점에서 경험하는 세계는 현대인의 사고 방식과 생활양식을 형성하고 있기에 이는 정신문화적 실체인 것이다. 맥도날드화는 서구의 계몽주의 시대를 거쳐 형성된 합리적 세계관이 사회 시스템으로 구현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서구 사회를 모방하며 따르고 있는 현대인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맥도날드화가 제공하는 합리성을 경험하며 내재화시키기 쉽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맥도날드로 상징되는 관료적 합리주의는 재편된 일반 사회 시스템의 운영방식과 경쟁원리를 교회도 부지중에 모방하기 쉽다.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적 가르침을 생활의 원리로, 삶의 체계로 드러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면에서 본고는 맥도날드화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비평을 통해 현대 사회 속에 깊이 스며든 관료적 합리주의 문화를 분별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사회의 맥도날드화

1. 현대사회와 맥도날드화

리처에 의하면 맥도날드화는 “패스트푸드점의 원리가 미국과 그 밖의 세계의 더욱 더 많은 부문들을 지배하게 되는 과정”(Ritzer, 1996: 22)이다. 맥도날드는 최대 글로벌 체인점을 거느린 기업임으로 이러한 패스트푸드점들을 상징하는 대표성을 가질 뿐 특정 업체에 대한 분석은 아니다. 따라서 맥도날드화라는 용어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합리주의 시스템의 등장

정치윤리학자 찰스 테일러는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특징을 불안으로 꼽으며, 세 가지 종류의 불안을 언급한다. 첫째는 개인주의가 만연해지면서 더 큰 차원에서 삶의 도덕적 의미가 사라지는 현상이고, 둘째는 세계의 탈주술화에 수반되는 도구적 이성의 사회지배현상이며, 셋째는 이와 같은 개인주의와 도구적 이성이 인간의 선택을 협소하게 만듦으로 파생되는 자유의 상실이다(Taylor, 1991: 10-19). 이중 두 번째 불안에 속하는 도구적 이성의 지배는 현대인의 삶을 기술과 합리성에 의해서 통제하는 현상이다. 도구적 이성이란 주어진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경제적인 수단을 응용해 내는 합리성으로서 우리의 생활까지도 지배하고 있다(Taylor, 1991: 14). 즉, 과학 기술이 인간의 삶을 해석하고 인도하는 현상을 탈 주술화라고 한다면, 여기에 도구적 이성에 의한 합리주의가 결합되어 움직이는 사회 시스템이 양산된다. 기술문명의 발전이 사회의 제 기관들과 인간의 생활양식에서 비용 대비 소득의 최대 효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효율적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데, 이것이 바로 리처가 말하는 사회의 맥도날드화를 형성하는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주의와 합리주의 시스템에 소비주의 생활양식이 결합된다. 소비주의가 철학과 생활 방식이 되면, 결국 모든 사회 시스템의 비인간화가 보편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인간의 관계와 접촉은 물질적 경험과 즉각적 만족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전락되기 때문이다(Kavanah, 2006: 67).

종합하면, 현대 기술문명은 생활의 제반 문제들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해줄 수 있는 조건을 마련 해주었다. 여기에 도구적 이성은 생산과 소비를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해주는 합리적 시스템을 추구하였으며, 오늘날 이와 같이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게 형식합리성, 또는 관료적 합리성의 실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패스트푸드점의 운영 원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맥도날드는 오늘날 패스트푸드점을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일 뿐이기에, 맥도날드화는 현대 사회를 진단하는 사회학적 용어로 쓰인다.

(2) 막스베버의 관료적 합리주의 이해

맥도날드화라는 용어를 창안한 조지 리처는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두 가지 유력한 관점을 비교한다(Ritzer, 2004: 74-75). 첫 번째 관점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의 폐해에 초점을 맞춘 칼 마르크스의 이론으로서, 이는 자본의 확장을 통해 이익을 증대시키고자 기업과 국가, 각종 공공 기관들이 결탁하며 사람들에게 소비문화를 퍼뜨리며 저개발 국가들을 착취하는 현상을 현대 사회의 중심적 문제로 본다. 두 번째 관점은 막스 베버의 비판인데, 그는 자본주의 경제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세계 전역에서 일어나는 합리주의 구조의 보편화에 더욱 주목한다. 베버는 자본의 확장과 노동의 소외 외에 사회의 관료적 합리화를 더욱 중요한 비판적 의제로 삼는다. 아무리 기층 민중과 노동에 의해 사회 리더십이 바뀌어도 합리적 시스템에 근거한 관료제가 사회를 지배하는 한 인간성 파괴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료적 합리주의란 이전의 서구사회에서 교회와 신학으로 통일되었던 세계가 각각의 가치 영역들로 분화되고, 각 영역들은 독자적인 자율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는 과정이다. 베버는 현대 사회에서 합리적 지배조직은 관료제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베버, 1977: 23). 이러한 고도의 합리적 관료주의는 점차 발전하여 머지않아 사회 전체를 형식합리성이라는 쇠창살 안에 가두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형식합리성이란 인간이 주어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을 추구하는 것이 규칙과 규정 그리고 보다 큰 사회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서, 인간 개개인의 고유한 수단과 장치를 발견할 필요 없이, 이미 검증된 규칙과 규정 그리고 구조에 순응하면 된다(Ritzer, et al., 2009: 28).

마르크스가 자기 확장적 자본에 의한 사회의 지배를 핵심적 문제로 삼았다면, 베버는 조직의 목적을 위해서 인간성마저도 수단화시키는 관료적 합리성의 확대를 사회의 병적 지배 구조로 본 것이다. 일단 관료제라는 단어가 의미하듯 이는 행정기관에서 사무적 효율성을 위해서 기술에 의한 합리화가 이루어진다. 현대사회는 갈수록 명망가나 소수 엘리트에 의한 운영체계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 합리적 관료제는 본질상 비인격성을 수반하게 되고 이를 운영하는 사람들마저 시스템 안에 종속시킨다. 즉, 사람이 바뀌어도 관료제는 스스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다(Weber, 1977: 57). 이러한 합리적 관료제는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전수되면서 합리적 체계화가 이루어지고 이와 동시에 '직무수행의 비인격화'가 확립된다(Weber, 1977: 67). 이러한 합리주의는 생활 속으로 파고든다. 교육과 교양이 합리적 관료제를 이끌어 갈 직업인과 전문인을 양산하기 위한 과정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비록 과거의 계층과 신분제 의한 사회적 지도자 배출을 대체하는 민주적이고 합리적 과정이긴 하지만, 동시에 과거

와 같은 교양인이거나 문화인이 아닌 기능적 직업인 배출에 머물게 된다. 따라서 관료적 합리성은 규칙과 일관성을 지향하는 대신 비인격성이 일거일동을 지배하게 된다(베버, 1993: 71). 베버가 예리하게 지적했던 이러한 관료적 합리성은 오늘날 모든 생활 영역에 퍼져 있으며, 제도화된 규칙과 규정, 과학적 관리 법칙이 설정된 목표를 위해서 모든 주변적 가치를 희생케 함으로 결국은 인간적 다양성과 창의성이 질식되는 비인간화를 초래하여 현대사회를 병들게 하는 주된 요인으로 자리 잡는 것이다. 극명하고 상징적인 현대적 예를 리처는 패스트푸드점의 보편화와 미국적 소비주의의 전 세계적 확산에서 착상을 얻어 ‘맥도날드화’라고 명명한다. 맥도날드화란 “패스트푸드점의 원리가 미국과 그 밖의 세계의 더욱 더 많은 부분들을 지배하게 되는 과정”이다(Ritzer, 1996: 22).

2. 맥도날드화의 네 가지 원리

리처는 합리주의적 관료모델이 현대사회에서 소비마케팅이라는 동력을 안고 맥도날드화의 원리를 따라 더욱 보편화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관료적 합리성과 편리성이 서구세계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현상으로서의 맥도날드화는 네 가지 대표적인 원리들로 움직인다.

(1) 효율성(efficiency)

효율성이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을 추구하는 것이다(Ritzer, 1996: 18). 이는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하게 하는 데 가장 빠르고 알맞은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맥도날드와 같은 패스트푸드 식당에서는 배고픈 상태에서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들의 개발이 효율성의 원칙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러한 효율성의 증대를 위해서 3가지 변화가 일어났는데, 첫째는 절차의 간소화다. 맥도날드는 창립 초창기부터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방의 작업을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검증을 통해 고안해냈다. 미리 반으로 자른 빵을 재생용 상자에 분리해 담아서 운반하는 것이, 또한 음식의 준비는 전문화된 조립 라인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임을 발견했다. 사람들이 지체 없이 끼니를 때울 수 있도록 매장의 동선을 최대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운전자용 창구를 설치하여 고객 입장에서는 차에서 내리는 번거로움 없이도 간편하게 식사를 주문하고 맥도날드 입장에서는 주차장, 식탁, 종업원, 쓰레기 처리까지 해결하는 효율적 체제를 수립했다(Ritzer, 1996: 83-85). 두 번째는 제품의 단순화인데, 이는 음식의 속성에 관한 것인데 적은 재료와 간편한 식사 절차를 통해 가능해진다. 패스트푸드점의 많은 음식들은 손으로 먹을 수 있어야 하며, 메뉴를 매장에서 제공하는 종류와 방식으로 제한시켜 숙련된 기술 없이도 생산과 서비스가 가능하게 만든다. 사실 패스트푸드점은 고객이 원하는 식이 아닌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음식을 조리하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는 선택권을 즐기기가 매우 어려워진다(Ritzer, 1996: 86-88). 세 번째 변화는 고객에게 노동을 전가하는 행위다. 패스트푸드점들은 ‘손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노라고 광고를 하지만, 실제로는 소비자들을 부려먹고 있는 셈이다. 샐러드 바나 차림대(빈 버거나 샌드위치 식빵만 갖고 가서 자기 기호에 맞게 내용물을 넣도록 하는 방식)는 고객들이 스스로 ‘일종의 조리’를 해야 하는 방식이며, 많은 패스트푸드점들이 고객들이 스스로 빈 컵에 자기가 원하는 음료수를 채우게 한다(Ritzer, 1996: 89). 이러한 형식들은 매장의 관점에서는 효율적이지만,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비효율적

인 아이러니가 발생한다고 리처는 지적한다.

이러한 효율적 생산과 서비스는 비단 패스트푸드점에 그치는 현상이 아니다. 컴퓨터 객관식 채점과 더불어 교재와 수업자료까지 제공하는 출판사를 통해 고도의 효율적인 교육수단을 확보하게 해주는 일명 ‘맥대학’과 정해진 간단한 진료에 한해 신속하게 치료하는 긴급 의료센터 또는 ‘맥병원’까지 등장하게 된다(Ritzer, 1996: 90-93). 이러한 간소화, 단순화, 고객에게 노동전가라는 효율성의 원칙은 제조업 현장과 은행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2) 계산가능성(calculability)

계산가능성은 모든 판매 제품과 서비스를 수량적인 측면에서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많은 양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질적 우수성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는 햄버거 크기나 스테이크 무게와 같이 질보다는 수량을 통해서 메뉴의 특징을 게시한다. 또한 모든 재료는 정확하게 계량되어야 하는데, 심지어 맥도날드에서는 ‘지방 측정기’를 자체 개발하여 햄버거 고기의 지방 함유량 19%선을 정확히 유지하게 하며, 음료자동공급기는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컵마다 정확한 양의 음료를 담는 것을 보증한다(Ritzer, 1996: 127). 또한 패스트푸드점의 운영 역시 질적 차원이 아닌 양적 차원에서 평가된다. 많은 경우에 패스트푸드 식당들은 비용 절감 뿐 아니라 시간의 최대 활용을 강조한다. 맥도날드화된 시스템에서는 질적인 측면에서의 효과적 업무 수행보다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종업원 1인당 매출과 수익을 일일이 계산하며, 종업원 이직률을 모니터링하고, 서비스와 청결을 등급화 한다(Ritzer, 1996: 128).

이러한 계산가능성의 원리는 교육기관을 포함한 일반사회의 영역 또한 관료적 합리화로 이끈다. 학교에서는 계량화된 학점의 상대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수학 능력을 측정하고, 교수들의 역량 또한 학생들의 강의 평가를 총합한 평균 점수 및 연구 업적물을 계산한 수치에 의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수량적 합리성을 통한 운영 및 관리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수익 전망을 계획하고 가늠하면서 객관적인 수요 지출 지표를 확보하여 차후 기업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반면, 소비자들은 규모의 경제로 인한 혜택을 받으면서 저렴한 비용과 짧은 시간으로 욕구를 해결했다는 실속을 얻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종업원들과 소비자들은 모두 계산의 대상으로 전락되며, 종업원들은 저임금을 감수해야 하며 소비자들은 저렴한 제품에 만족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3)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이는 제품과 서비스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며, 변화와 모험을 기피하는 사람들의 심리에 부응하는 것이다. 예측가능성의 핵심은 표준화에 있다. 시설, 디자인, 메뉴, 조리 방법, 복장 등이 동일한 표준을 따른다. 종업원의 경우는 단순 반복의 업무와 서비스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면 그만큼 편리함과 자유를 얻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되면, 고객 또한 예측한 대로와 동일한 맛과 서비스를 안심하고 제공받기에 이러한 예측가능성을 선호한다. 세계 어디에서나 어떤 맥도날드에 가도 정확히 똑같은 경험을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관리자나 소유자는 종업원과 고객을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Ritzer, 1996: 154).

맥도날드는 햄버거 빵을 예측 가능하게 제공하기 위해 거칠고 영양가 있는 부분을 제거하며, 빵의 부패를 늦추기 위해 방부제를 첨가한다(Ritzer, 1996: 163). 리처에 의하면,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대표 주자는 디즈니다. 디즈니는 관람객들이 어떤 무질서에도 노출되지 않도록 쓰레기는 신속히 치우고, 노점상은 허용하지 않으며, 취객의 입장은 허용되지 않게 함으로 질서정연한 세계를 제공한다. 디즈니의 캐릭터들은 고객들에게 친숙한 예측 가능한 상품들이며, 직원들의 서비스에도 해야 할 일과 해야 할지 말아야 할 일의 목록이 있다. 예를 들어, 여직원의 경우 눈 화장이나 하얀 머리 염색은 금지, 남자 직원들은 콧수염이나 턱수염을 기를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Ritzer, 1996: 172).

이와 같이 예측가능성을 선호하는 맥도날드화된 서비스 영역에서 종업원의 고객 접대는 대부분 관례화되어 있고 미리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연출되기도 한다(Ritzer, 1996: 155). 이는 종업원의 자기 진작에도 적절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때로 손님이 종업원에게 모욕과 경멸을 가해도, 종업원들은 자신의 인격이 아닌 관례와 각본을 향한 것으로 간주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Ritzer, 1996: 157).

예측가능성 또한 마찬가지로 다른 일상의 영역에도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물만 부으면 되는 냉동 건조식품이나 전자레인지로 해동만 하면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냉동음식 등은 예측가능한 요리의 형태라 할 수 있다. 또한 패키지여행이 유행이 되면서 사람들은 여행지의 고유문화와 최소한으로 접촉하며 정해진 일정에 따라 비슷한 사람들과 여행을 하게 됐다(Ritzer, 1996:179). 만일 일상적으로 반복되어 숙달된 업무와 정해진 각본을 따르지 않는 경우, 서비스를 주고받는 이들의 행동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필자의 경험을 예로 들자면, 필자를 포함 다섯 명이 함께 한 월남 식당에 갔는데 만두를 같이 나눠 먹고자 주문하려고 보니 한 접시에 만두 4개로 정해진 것이다. 종업원에게 비용을 더 지불할 테니 만두를 하나만 더 달라고 하니, 그 종업원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해 해서 우리가 포기한 적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이 일상화되고 융통성 없는 각본에 의존하는 예측가능한 서비스의 현실이다.

(4) 통제(control)

맥도날드화의 마지막 원리인 통제는 서비스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작동기제다. 일반 음식점의 경우 전담 요리사에 의해서 음식의 질이 달라질 수 있지만,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요리사가 필요없다. 요리사로 인한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이다. 또한 고객이 얼마나 오래 있을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테이블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딱딱하고 불편한 의자를 배치한다. 이런 식으로 종업원과 고객 모두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Ritzer, 1996: 187).

대표적인 통제 방식은 무인 기술이다. 음식들은 공장에서 자동화된 로봇에 의해 미리 어느 정도만 들어져서 각 매장으로 배달되기에 종업원들의 일은 크게 줄어든다. 이러한 무인기술에 의한 인력 대치는 계속 확장되고 있다(Ritzer, 1996: 217). 컵이 차면 자동으로 정지되는 음료수 공급기, 자동 감자 튀김기, 현금등록기, 더 나아가서 햄버거 만드는 로봇에 이르는 무인기술을 통해 종업원의 일은 기계와 규칙에 의해서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오며, 중앙에서 원하는 한결같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주문량과 생산량은 전산시스템으로 인해 관리자의 주관적 판단과 결정이 개입될 여지가

들어든다. 고객 또한 컨베이어 벨트에 들어서듯이 줄서기부터 주문하고 음식 받아서 먹고 쓰레기통에 버리기 까지 일련의 ‘패스트푸드점의 식사규범’(Ritzer, 1996: 192)을 먼저 숙지하고 따라야 한다.

이러한 통제 원리는 교육 영역에도 적용되어 학생들을 유순하게 만들고 있다. 학생들은 암기 학습과 객관식 시험이라는 합리화된 절차로 통제되면서(Ritzer, 1996: 194), 자발성과 독창성이 신장되기 힘들다. 강의 평가제는 교수로 하여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강의하게 만듦으로 자유롭고 소신 있는 교육 서비스를 저해할 수 있다(Ritzer, 1996: 193). 의료계에서는 질병의 자가 진단 기술이 발전하여 의사와는 별도로 비인격적 의료 체계를 형성하면서 건강을 통제하고 있는데, 이는 고객에게 노동을 전가하는 맥도날드 사회의 또 다른 예라 할 수 있다(Ritzer, 1996: 196).

3. 맥도날드화의 평가와 전망

이와 같은 맥도날드화는 삶의 전 영역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회복지 영역도 맥도날드화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사회복지사는 관계에 기초한 서비스가 아닌 고객과 자원을 연결시켜 구입하도록 해주는 중개인(brokers)으로 변화되었다(Dustin, 2007: 30-31). 또한 현대의 가정은 TV, 핸드폰, 컴퓨터 등과 같은 기술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가족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상담과 대화보다 미리 포장된 조언들이 묶인 처세서적을 손쉽게 구하고(Ritzer et al., 2009: 124), 가족 여행은 인근 테마파크로 가족 잔치는 체인 레스토랑에서 하는 것으로 대치되었다(Ritzer et al., 2009: 126). 이처럼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맥도날드화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러한 사회 분석 틀로서의 맥도날드화가 여전히 유효한지, 또한 이와 연관해서 맥도날드화라는 관점은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를 평가하며 전망해보자.

(1) 맥도날드화의 비인간화

맥도날드화가 가속화될수록 역설적으로 비효율성, 예측불가능성, 계산불가능성, 통제 불능을 일으킨다고 리처는 진단한다. 즉, 현실적인 차원에서 맥도날드화가 추구하는 합리성이 오히려 불합리화를 초래하는 것이다. 고객의 신속하고 편리한 동선을 예측하여 설계된 계산대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는 경우가 다반이고, 비용 측면에서 집에서 식사하는 것보다 결코 낮지 못하다(Ritzer, 1996: 223). 패스트푸드는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협이 되며(Ritzer, 1996: 231), 복제품의 양산으로 인해 고유함이 사라질 수 있다. 또한 종업원들의 낮은 직업 만족도로 인한 잦은 결근과 높은 이직률도 합리적 서비스를 위태롭게 만드는 요인이다.

맥도날드화의 가장 근본적인 폐해는 비인간화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고객과 종업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식사를 간편하게 해결한다는 장점이 고객으로 하여금 음식의 맛을 느낄 여유도 없이 일종의 조립라인위에서 서둘러 식사를 끝내는 ‘자동기계장치’(Ritzer, 1996: 236)가 되게 한다. 맥도날드화의 또 다른 사례로 거론되는 디즈니랜드는 홍보하는 것처럼 창의성과 상상을 자유롭게 하기보다는 사실상 가식화된 꿈일 뿐이며 모험도 존재하지 않는다. “미리 만들어진 상호작용이 진정한 인간관계를 대신할 때 비

인간화가 일어난다.(Ritzer, 1996: 237)” 이러한 비인간화를 리치는 접촉의 ‘최소화’(Ritzer, 1996: 238-240)와 경험의 ‘동질화’(Ritzer, 1996: 244-245) 현상으로 비판한다. 종업원은 계획되고 각본에 따른 제한된 방식으로 고객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비인격적이고 익명적인 관계가 강화된다. 이는 빠른 속도의 현대적 삶에 어울린다. 이와 같은 제한되고 인스턴트식 만남 속에서 진실한 친교는 존재할 수 없다. 또한 복제된 서비스와 제한된 메뉴는 동질화를 강화시킴으로, 다름이라는 가치가 부각되기 힘들다.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은 늘어나지만 차별적인 것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롭고 다양한 것을 경험하려는 인간의 갈망은 쇠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의 합리화가 반드시 해로운 것만은 아니다. 의료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다. 생명을 구하는 기술의 도입과 관료적 감독에 의한 의료비용 억제와 같은 유익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의료 영역에도 여전히 불합리성은 존재한다. 의료 서비스의 주도권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으로부터 합리화된 구조와 제도로 옮겨지기 때문이다. 또한 합리화된 대형 병원에서는 환자들은 매년 다른 간호사를 만남으로 개인적 관계가 발달하지 못하고 의료 체계 속의 한 숫자로 전락된다. 아울러 진료시간의 최소화와 수익의 극대화는 의료행위의 질을 떨어뜨린다(Ritzer, 1996: 246-247). 이러한 인격적 관계의 축소는 교육 영역에도 적용되어 학생들과 교수의 상호작용은 갈수록 쇠퇴하고 원격강의 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최소한의 접촉마저 줄어드는 교육의 비인간화까지 초래하고 만다(Ritzer, 1996: 248-250).

(2) 분석틀로서의 맥도날드화에 대한 평가

맥도날드화는 합리주의적 관료제가 현대 사회의 소비적 생활양식 뿐 아니라 교육, 의료 영역에 까지 침투하여 비인간화를 초래하는 현상에 대한 분석 틀이다. 그러나 이러한 맥도날드화의 분석과 전개가 근대성이라는 시대적 한계에 머물렀다는 지적도 있다. 박창호는 탈근대사회에서 소비는 철저히 개인적이며 자기실현과 자기과시의 구체화된 형태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박창호, 2008: 45). 그는 리치의 맥도날드화는 생산자 중심의 체계에서 소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근대적 합리성에 기초했으나, 사이버공간이 등장하면서 공간을 넘어서는 소비수단의 원격화와 탈물질화라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주목한다(박창호, 2008: 57). 이러한 소비는 맥도날드화에서 보는 정형화된 경제행위에 그치지 않고, 유희와 환상적 미혹과 같은 여러 다양한 인간 행위가 포함되는 하이브리드 소비가 일어나며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소가 디즈니랜드다(박창호, 2008: 59). 박창호는 맥도날드화를 근대적 생산 우위의 체계에서 사회를 인식하는 틀로 보며, 탈근대적 자신의 스타일과 이미지를 즐기는 소비 중심의 사회를 분석하는 틀로 탈 맥도날드화라는 맥락에서 ‘디즈니화’로 명명한다(박창호, 2008: 60-61). 이는 사이버공간의 출현으로 소비자들은 합리화 보다는 오히려 상징과 미혹의 세계를 더욱 지향하는 모습을 보이며, 더 나아가 소비자들과 판매자의 뚜렷한 구분도 없는 탈분화 현상은 맥도날드화로는 설명되기 어렵다는 것이다(박창호, 2008: 66).

그러나 디즈니화를 맥도날드화와 차별되는, 혹은 탈맥도날드화의 발전된 형태로 볼 수 있는냐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박창호 자신도 디즈니화를 정리된 개념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듯이(박창호, 2008: 46), 비록 맥도날드는 관료적 합리성과 과학적 통제라는 근대성에 기반을 두고 디즈니화는 다양성과 소비자

선택이라는 탈근대성에 어울리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양자 사이를 연속성보다는 단절로 보는 시각은 다소 자의적이다. 박창호가 디즈니화의 개념을 빌려온 브라이언 자신이 디즈니랜드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감정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손님에게 응대함으로써 자기 소외의 경험을 갖게 된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맥도날드화를 디즈니화의 구조화되고 전이된 형태라고 규정하는 것을 볼 때(Ritzer et al., 2009: 61), 단순히 손님의 입장에서 경험되는 미혹적 소비의 불합리성만으로 디즈니화를 차별화시키는 어렵다. 조 킨첼로는 탈 근대사회에서도 맥도날드는 상징적 권력을 잡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맥도날드는 음식 뿐 아니라 캐릭터 인형, 실내외의 놀이시설, 화려한 유니폼과 조리기기, 선물과 같은 포장 등과 같은 ‘구경문화’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킨첼로, 2004: 113-115).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재미와 고감도 입맛을 제공해주는 이 생산과 소비의 통합된 합리적 체제가 미혹의 요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맥도날드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불확실한 세계의 진정제 기능을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킨첼로, 2004: 206).

그 외에도 맥도날드화에 대한 대안으로 생산공정의 다양화인 스니커화(sneakerization)도 논의가 되지만, 리처는 결국 맥도날드화가 소품종 다량생산 시스템으로 자신을 적응해가면서 위협을 극복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한 근대이든, 탈근대이든, 오늘날을 사는 이들에게 합리화의 과정은 이미 이성적인 가치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각인된 정서적 가치이며 분주함과 속도 중시의 시대 환경에 부응한다. 따라서, 맥도날드화의 변성은 비창의적 정신, 단순한 자아, 각본, 일상적 틀에 의한 최소화된 의사소통이라는 기본 요건만 갖추면 가능할 것이다(Ritzer, 1996: 266). 오히려 맥도날드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불합리성에 대한 도피처 노릇을 할 것이다. 베버가 합리주의화가 수백 년 이상 장기적 지배를 하리라고 보았듯이, 이러한 맥도날드화의 과정은 탈근대 사회에서도 유효할 것이다(Ritzer et al., 2009: 371).

(3) 맥도날드화의 발전

리처는 글로벌화라는 개념을 통해 맥도날드화를 통해 현대 사회에 만연해지는 형식합리성의 무한추구를 지적한다. 그는 이러한 현상을 ‘낫씽의 세계화’(the globalization of nothing)라는 개념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비교적 결여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중앙 중심으로 고안되고 통제되는 사회 형식”(a social form that is generally centrally conceived, controlled, and comparatively devoid of distinctive substantive content)이라고 정의한다(Ritzer, 2004: 3). 낫씽과 대조되는 바람직한 과정은 ‘섬씽’(something)인데, 이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비교적 풍성하며, 일반적으로 토착적으로 고안되고 통제되는 사회 형식”(a social form that is generally indigenously conceived, controlled, and comparatively rich in distinctive substantive content)을 말한다(Ritzer, 2004: 7).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나 대형쇼핑몰, 디즈니랜드 등은 바로 이와 같은 낫씽이 세계화되는 전형적 현상이다. 리처는 섬씽과 낫씽의 형식이 세계화(globalization)의 두 방향인 ‘글로벌화’(glocalization) 되거나, ‘그로벌화’(globalization)될 수 있다고 본다. 지역에 국한되는 특성을 강하게 띠는 것을 ‘글로벌’이라고 한다면, 지역성을 떠나서 보편적으로 복제되고 퍼져나가는 현상을 ‘그로벌’이라고 볼 수 있다. 주로 섬씽은 글로벌화와 친화성을 띠고, 낫씽은 그로벌화와 동반할 가능성이 높지만 각각의 두 형식과 두 방향은 서로 교차해서 맞물리게 된다.(Ritzer, 2004: chapter 5).

예를 들어, 지역 마을의 공방에서 벌어지는 고유한 작업행위들과 작품들은 섬唄의 글로컬화이지만, 그것들이 그 지역의 특산품이 되면 고유한 작품이 고착화되고 계속해서 복제된다면 낮唄의 글로컬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반면 그러한 공방과 작품들이 여러 박물관들에 전시되고 지속적인 창조 활동에 영감을 준다면, 비록 구조는 지역화의 특성을 벗어났지만 여전히 섬唄에 더 가까운 형태를 유지함으로써 섬唄의 그로벌화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특성(즉, 토착 공방이나 지역 특산품 매장 형태)을 벗어날 뿐 만 아니라 제품마저 대량 복제되어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도구로 전락되면(예를 들어, 테마파크의 캐릭터), 이는 낮唄의 그로벌화로 진행되는 것이다.

섬唄와 낮唄의 대비가 반드시 가치의 대비는 아니다. 낮唄에도 유익한 면이 있다. 일단 비교적 저비용의 혜택이 있으며, 현금 소지의 불편함을 없애주는 신용 카드와 같은 편리성이 있다. 또한 소비자로서 하여금 당면 과제와 문제를 쉽고 풍성하게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 여건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테마파크는 큰 노력 없이도 여가를 만족스럽게 보낼 수 있는 이점이 있다(Ritzer, 2004: 142).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唄의 확산에는 어두운 면이 있다. 박물관, 교회, 학교, 도서관, 병원 등이 모두 쇼핑 공간으로 변식되어, 소외와 착취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소비주의 문화는 결국 인간에게 공허함과 상실감을 남겨주며, 그로벌화는 고유하고 창의적인 문화와 내용을 희생시킨다(Ritzer, 2004: 143-148).

지금까지 리처의 맥도날드화와 논의들을 검토해볼 때, 맥도날드화는 낮唄이라고 하는 실질적 의미와 인격성이 상실되는 형식 합리화사회 과정의 확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형식합리성의 병리적 사회 지배에 대응하여 리처가 제시하는 대안은 그의 분석에 비해 매우 간소하다. 예를 들어, 수량적 생산보다는 질에 초점을 맞추는 서비스를 강조하며, 예측불가능성을 즐기는 삶을 살라든지, 숨씨를 발휘하는 숙련된 노동자의 고용, 그리고 규모에 굴복하지 말고 고객과 종업원이 모두 조합원인 생활협동조합에 참여하라는 정도다(Ritzer, 1996: 333). 본고는 이러한 맥도날드화의 강력하고 포괄적 도전에 기독교적 관점과 삶의 자세를 확립하여 대응하고자 한다. 즉, 맥도날드화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회현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삶과 세계를 조망하는 관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를 기독교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다음에 논의할 내용이다.

III. 교회의 맥도날드화

맥도날드화의 과정은 일반 사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의 실천과 관행들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톰 사인은 오늘날 우리에게 가해지는 도전은 한때 “종교적인 경건 생활의 중심이던 교회의 역할을 쇼핑센터가 대체하면서 세계 단일 소비자 문화가 적극적으로 창설”(Sine, 1999: 79)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회는 원래 지녔던 사회적 영향력을 단순히 맥도날드화에 의해서 빼앗겼을 뿐 아니라, 교회 자체가 맥도날드화의 영향을 받는 또 하나의 기관이 되기도 한다. 존 드레임은 리처의 맥도날드화가 지니는 4가지 원리들을 교회의 현실에 적용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진단하며 적용하였다. 이하의 내용

에서 필자는 드레인의 맥도날드화된 교회 비평에 기초하며 이를 서구 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상황과도 연결시켜 서술하고자 한다.

1. 효율성

효율성의 범칙은 교회에서 아주 흔하게 발견될 수 있다. 미리 맞춤화 되고, 완제품화 된 교회 관련 사역 프로그램들이 유행처럼 나오고 있다. 교회는 처음 방문한 이들에게 거의 비슷한 유형의 환영 인사와 환대 프로그램(방문자 주차석, 식당 VIP석 접대, 환영책자와 선물 등)을 베풀긴 하지만, 얼마나 진정성 있는 인격적 관심이 내포되는지는 의문이라고 드레인은 말한다(Drane, 2001: 40). 또한 교회들은 너무 많은 에너지와 비용을 정교한 현대인의 욕구에 맞게 예배를 사전에 기획하고 프로그램화하는데 쏟고 있는데, 이는 미리 포장된 영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마치 손님 쪽에서 관여하거나 기다릴 필요 없는 페스트푸드점의 서비스와 다를 바가 없다. 다른 누군가가 고객이 된 교인들을 위해 생각하고 노력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비주의적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것이다(Drane, 2001:41). 물론 이러한 효율성이 우리의 수고를 덜어주고 좀 더 핵심적인 것에 집중하게 해주는 유익은 있다. 그러나 인간 개개인의 고유하고 복잡한 상황을 고려할 때, 효율성에 기초한 패키지 프로그램에 의존은 인격적 목회와 창의적 사역을 가로막을 수 있다. 또한 최근 기독교 출판계에서는 영적 생활을 범칙화시키는 주제의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또한 전적 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풍성하고 다양한 역사를 인간이 숙련시킬 수 있는 효율적 규칙 목록 안에 가두는 위험성이 있다.

2. 계산가능성

계산가능성은 교회의 수적 성장을 위한 세미나와 노력들에서 지나칠 만큼 경험된 현상이다. 교회 성장학이 어떠한 사회 문화적 요인들이 교회를 수적으로 성장시켰는가에 대한 기술적 연구(descriptive research)임에도, 현실적으로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외형적 성장과 수적 통계, 헌금 액수에 따라 교회의 성공 기준을 삼아온 것이 사실이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의 공동체이기 보다는 사람들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좋은 건물로 인식되면 교회 구조가 ‘비인간화’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게 된다(Drane, 2001: 45). 비록 교회 성장을 단순한 수적 통계에 국한하지 않고 유기체적 성장을 모색하는 시도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례로 등장하는 교회들은 수적 성장의 증거가 없는 설득력을 못 갖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서구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들도 소수의 교회들을 중심으로 대형교회화되면서 동시에 전체 한국 개신교의 교세가 줄어들었다는 사실도 의미심장하다. 이는 교회들의 대형화가 중소 교회들로부터의 수평적 이동에 기초했을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됨은 수량으로 계산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제자됨은 변화되고 현신된 삶으로 증명되기 때문이다. 수량적 통계 또한 전혀 무익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통계의 내용이 정확한 실체를 알 수 없는 허수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방향에 있어서 질적인 특성을 가리킬 수 있어야 한다.

3. 예측가능성

드레인은 맥도날드화의 예측가능성이라는 원리는 교회로 하여금 현대사회에서 더 이상 호소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라고 진단한다(Drane, 2001: 49). 교회의 전도와 제자도 사역들이 사람들의 영

적 상태를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전제하고, 일률적인 메시지와 양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려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신학자들까지도 사람들의 각기 다른 신앙 여정을 신앙의 단계 이론으로 측정하고자 하는데, 이 또한 예측가능성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Drane, 2001: 50). 드레인의 이러한 의구심은 상당히 현실에 부합된다고 본다. 소위 성공적인 목회 양상을 보인 교회들의 검증된 프로그램을 자신들의 교회에 이식하고 복제함으로써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는 교회 지도자들과 그들을 위한 세미나는 여전히 인기 있다. 또한 여러 교회들과 신자들에게서 탁월한 효과를 입증했다는 한 수양회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영적 변화를 예측하고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고안하기도 한다. 즉, 열정적 찬양과 상상 이상의 접대, 감동적 메시지 등과 같은 적절한 내용을 입력(input)하면 기대하는 결과(output)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수양회 봉사자들은 무대 뒤에서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고 그들에게서 최대한의 결과가 나오도록 기도하고 방법을 구상하여 실행한다. 물론 영혼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칭찬할만한 일이지만, 이러한 프로그램화된 시도가 결국은 성령의 초월적인 역사에 의존하기보다는 인간적 예측가능성에 더 이끌려진 것이 아닌지 진지하게 자문해봐야 한다.

4. 통제

통제라는 양식은 교회 사역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며, 지금까지 논의된 교회의 맥도날드화에도 보편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드레인은 대표적인 예로 전도 집회에서 통제의 원리를 끌어낸다. 빌리 그래함 전도집회의 단골 순서인 ‘제단으로의 부르심’(altar calls)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영적 사회화의 입문 기능을 하는데, 이는 마치 테마파크에 입장하면 진행요원을 따라 놀 거리를 즐겨야 하는 절차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이다. 다만 전도 집회에서는 진행요원이 상담자(counselors)로 바뀌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마치 기독교 신앙에 들어서고 성장하는 길이 한 가지 방식 밖에 없는 것처럼 매뉴얼화된 접근이 사람들에게 하여금 신앙의 세계에 여러 가지 루트와 시간대로 탐구할 수 있는 길을 가로 막을 수 있다고 드레인은 지적한다(Drane, 2001: 52). 앞서 언급한 수양회에서는 프로그램 기간 동안 참석자들이 임의로 탈퇴할 수 없도록 스태프들이 공간을 통제하는 경우가 흔하고, 시계와 핸드폰을 못 보게 한다. 어느 정도 집중성과 인내를 위해서 이러한 장치들이 전혀 불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소위 영적인 체험을 위한 수양회에서 그 효과를 지나치게 인간적인 통제 수단에 의존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생긴다. 지난 수년간 한국교회에도 유행처럼 번진 ‘소그룹’ 혹은 ‘셀그룹’도 상호 지원과 격려, 그리고 치유가 자유롭게 순환되는 열린 네트워크의 공동체가 아닌 교인들을 효율적으로 조직 관리하기 위한 또 하나의 통제 장치로서 ‘위장된 공동체’(pseudo-community) 기능을 할 수 있음도 유의해야 한다. 완전 자유롭고 개방적인 공동체는 지나친 이상이었지만, 상호 책임성(accountability)과 통제는 현격한 질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Drane, 2001: 53-54).

지금까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생활 현장에서 일어나는 맥도날드화를 비판적으로 진단했는데, 이는 맥도날드화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은연중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주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간의 행동은 세계관의 기반위에서 이루어진다. 맥도날드화에 대한 대응은 단지 실천의 문제가 아닌 관점의 차원이다. 따라서 이제 더욱 근원적인 차원, 즉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세계관의 차원에서 맥도날드화를 비평함으로써 더욱 온전한 기독교적 제자도에 접근하게 될 것이다.

IV. 맥도날드화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대응

맥도날드화를 이해하고 진단하며 대응하는 일은 기독교적 제자도의 영역이자, 기독교 세계관의 비평 주제가 된다. 왜냐하면 사회의 모든 현상은 그 배후에 인생과 세계에 대한 관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맥도날드화는 몇 가지 신념과 관점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면서 파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1. 유신론적 개방 체계 vs. 자연주의적 폐쇄 체계

기독교 신앙은 견고한 유신론적 세계관에 근거한다. 제임스 사이어는 기독교의 유신론적 세계관을 다루면서 두 번째 명제로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우주를 창조하셨고, 이 우주를 “개방체계(open system) 속에서 인과율의 일치제(uniformity)로 운행하도록 하셨다”(Sire, 2004: 40)고 정의한다. 무로부터의 창조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확인이며, 두 번째 개념인 ‘개방체계 속에서 인과율의 일치제’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실제적 운행 원리를 균형 있게 잘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즉, 우주는 무질서하게 창조되지 않았으며 명료하고 통일되게 운행될 수 있다. 이는 거시적 우주의 운행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질서와 규칙의 존재가 자연스러운 원리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우주와 인생의 체계는 개방되었다. 사이어는 이 의미를 “우주가 프로그램화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Sire, 2004: 41)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 세상과 인생은 전적 타자인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인간도 계속해서 현 피조세계의 변화가능성에 참여할 수 있다. 성경은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바로 창조-타락-구속의 전개방식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는 정해진 체계 안에서 어긋남 없이 완벽하게 정해진 코스를 밟는 것이 아니라, 관리의 사명을 맡긴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조정된다.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타락하였고 피조세계 또한 고난에 처하게 만들었다. 그러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의 은총으로 인간과 피조세계를 회복하셨고, 종말에 이 구속을 완성하신다. 성경적 유신론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에 열려있는 세계관이다. 신이 피조세계를 지으시고 내재된 작동원리에 따라 저절로 움직이도록 방관하신다는 이신론의 세계관과는 다르다.

반면 맥도날드화는 그 이면에 세상을 폐쇄적 체계로 이해하는 자연주의 세계관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연주의 세계관의 주된 명제 중 하나는 “우주는 폐쇄 체계 속에서 인과율의 일치제로 존재한다(Sire, 2004: 88).” 자연주의적 폐쇄 체계는 외부의 신적 개입을 배제하고 철저히 자연 안에 내재된 법칙과 원리에 따라 세상과 인생이 움직인다고 보는 견해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관은 하나님의 간섭과 조정을 거부하기 때문에, 인간 혹은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 자기들의 의도에 따라 세상을 조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자연주의 세계관은 더 나아가 인간을 복잡한 기계로 보며, “인격이란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화학적, 물리적 성질의 상호관계”(Sire, 2004: 90)로 간주한다. 이러한 자연주의 세계관의 시각은 맥도날드화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기계적 시스템에 의한 비인간화로 드러난다. 폐쇄 체계는 정해진 규칙과 공정의 틀 안에서 인간을 종속시키기 때문에 열린 체계에서와 같은

초월적 접촉과 개입이 배제되며, 인간됨의 진정한 기반이 축소되고 가시적 세계 안에 갇히게 된다.

2. 창조적 존재로서의 인간관

세계관은 그에 준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수반한다. 유신론적 세계관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므로 인격, 자기 초월성, 지성, 도덕성, 사회성, 창조성 등을 지닌다(Sire, 2004: 42).”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고 피조세계를 관리하고 번성케 할 책임을 지닌 존재라고 말한다(창1:26-27).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인간도 무한한 창조성을 지닌 존재라는 의미이다. 특히 창1:26-27과 창2:15의 “땅을 경작하며 지키라”는 명령에는 창조를 발전시키라는 의미가 내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 사역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걸작품을 위한 청사진에 따라 끝까지 임무를 수행하는”(Wolters, 2005: 81) 존재인 것이다. 예술가의 창조적 작품 활동이나 인간의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기발한 발상 등도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맥도날드화에서 나타나는 주된 양상인 일상의 정해진 반복을 통한 효율성 증대는 창조주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의 본질적 창조성과 창조를 지속 발전시키라는 명령과 어긋나게 된다. 또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성경의 선언을 기초로 할 때 모든 인간의 창조적 잠재성은 인정되고 개발되어야 한다. 이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된 초월성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간은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반응을 하도록 강요받아서 안되며 환경을 극복하고 초월하고자 하는 시도 속에서 자신의 내재된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

3. 성육신의 관계적 비전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와 타락에 대한 해결책으로 구속을 말한다. 인간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원래 창조의 선한 의도대로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통해 일어난 것으로 말한다. 또한 하나님이 좋게 보신 창조 세계의 선함(창1)과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선하다는 성경의 선언(딤후 4:4)은 인간이 영혼을 지닌 존재일 뿐 아니라 또한 물질성과 지역성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암시한다. 이러한 성육신적 비전을 논하면서 제임스 스미스는 기독교 세계관은 인간의 몸과 공간의 선함을 확증한다고 주장한다(Smith, 2006: 140). 몸과 공간이 선하기 때문에, 인간의 접촉과 관계는 참된 인간다움의 본질적 요소이며, 공간과 지역은 인간의 존귀함이 깃드는 매우 중요한 무대인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도 구체적인 지역(팔레스타인)에 임하셔서 구체적인 공간(갈릴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은 인간의 몸과 공간적 활동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신성하다고 본다.

반면 맥도날드화가 기반하고 있는 현대 자본주의와 소비주의의 성장 경제는 인간 대 인간, 인간 대 사물의 접촉을 피상적으로 만든다. 독특한 지역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간의 획일화를 도모한다. 또한 불편하고 딱딱한 의자를 배치하는 구상에서 볼 수 있듯이 공간에서의 오랜 관계와 접촉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시도는 우리로 하여금 한 장소에서 오래 있기를 만족하지 못하는 유형으로 만들려는 현대 시장 경제의 원리를 반영하는 것이다(Smith, 2006: 141).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였다고 선언한다. 따라서 인간관계와 공동체를 위한 ‘성육신적 지리학’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러한 성육신 사상은 근대성의 탈육체적 추상화와 분명히 다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스미스, 2006: 143).

4. 조화와 평화의 비전을 품는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기초로 하는 신국적 세계관이다. 따라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야 하는 장이며, 모든 피조세계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지향점으로 삼아야 한다(이승구, 2007: 91).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맥도날드화에서 나타난 것처럼 획일적이거나 일률적인 통제와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대성의 전체주의와 동일시 폭력의 원천인 모든 거대담론을 거부한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전제하는 점에서 거대담론이지만 근대적 인본주의 세계관과는 다르다.

현대 세속사회의 세계관은 가장 심층부에 과학 지상주의라는 이상을 기반하고, 그 위에 기술지상주의라는 이상이 과학적 지식으로 창조세계를 통제하고 지배하려 하며, 이 과학주의와 기술주의를 토대로 하여 경제지상주의가 노골적으로 끝없는 진보와 삶의 향상을 추구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미들턴 • 왈쉬, 2007: 42). 이러한 세계관은 맥도날드화의 배경적 신념들과 일치한다. 미들턴과 왈쉬는 이와 같은 현대 세속적 세계관이 구축된 모습을 바벨탑이라 비유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과학주의, 기술주의, 경제지상주의로 층층이 구성된 근대적 세계관의 균질성에 맞서서 각기 민족과 방언으로 성령의 지시함을 받았던 오순절 사건(행2:1-8)을 기독교적 세계관의 대안적 방향으로 제시한다(Middleton and Walsh, 1995: 385). 원래 바벨탑은 인간들을 획일화시키고 하나의 목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였다. 그리고 이러한 강제적 통일을 이루려는 자율적 시도에 대한 심판으로 인간의 공동체가 파열되고 흩어졌지만,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이야기 안에서 전체주의적이거나 폭력적이지 않으며 다양성 가운데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로 회복된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 신분, 성별에 의한 차별이 없어짐을 선언하며(갈3:28), 동시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계21:14) 미래적 구상 속에서 고유함과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한다.

성경의 세계관은 조화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세계관이다. 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은 획일성을 강요하며 평화를 이룩하지 않는다. 유신론적 세계관에서 지향하는 질서는 전체주의적 이성의 권력이나 자기 동일화의 환원주의가 아닌 모든 다양한 피조물들이 서로 다름의 사회성을 존중하는 ‘조화로운 평화’(harmonic peace)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Milbank, 1990: 5).

V. 결론

맥도날드화는 현대인의 삶과 생각을 지배하려 드는 세계관이자 사회적 시스템이기에, 이는 기독교 세계관의 비평적 주제이자 제자도의 실천 영역이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맥도날드화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상 속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증인의 삶을 실천해야 한다. 리처드 보캄은 기독교적 신앙은 종말론적 움직임(movement)을 갖는데, 이는 인간이 계산하거나 성취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오직 하

나눔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태도라고 주장한다(Baukham, 2003: 37). 효율성, 계산가능성, 예측가능성, 통제를 통해 사회를 조종하고 지배하려는 욕망은 기독교적 종말론과 대비된다. 톰 사인은 맥세상(McWorld)으로 대변되는 경제효율성의 법칙을 추종하며 정상을 향해 질주하려는 현 자본주의와 소비주의 욕망의 세계와 대조되는 소박함과 섬김의 대안적 삶을 주장하며, 이를 이웃의 삶에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겨자씨 생활양식을 제안한다(Sine, 1999: 290). 비록 맥도날드화가 현대 자본주의와 합리주의 사회에 도도하고 지배적인 생활양식일지라도,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확립한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이 주도하고 통제하는 효율적 성장 보다는 인격적 교제와 상호 책임의 공동체적 영성에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도하신다는 성경적 세계관과 믿음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극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Abstract

McDonaldization is in the wake of Max Weber's bureaucratic rationality that was foundational to the pathology of the west as Weber diagnosed. Goerge Ritzer coined the term 'McDonaldization' to describe the prevalence of formal rationalism around the world. In fact, McDonaldization is a symbolic representation of fastfood restaurants, of which working principles reflect the modern version of bureaucratic rationality. Four characteristics of McDonaldization are efficiency, calculability, predictability, and control. These four traits permeate the life of the church and Christians as well as dominate secular world. In a response to McDonaldization, this article attempts to present the Christian theistic worldview by explicating its open system, creativity of human beings in the image of God, harmonic peace of the created world, and the relational vision of Incarnation. Establishing the biblical worldview in the mind and life of Christians will serve as basis on which we live running counter to the world of McDonaldization.

참고문헌

영문서적

- Dustin, Donna. (2007). *The McDonaldization of Social Work*. Hampshire, England: Ashgate.
Drane, John. (2001). *The McDonaldization of the Church*. Macon, GA: Smyth & Helwys.
Milbank, John. (1990). *Theology and Social Theory*. Oxford, England: Blackwell.
Ritzer, George. (2004). *The Globalization of Nothing*. Thousand Oaks, CA: Pine Forge.
Ritzer, George. (Ed.) (2009). *McDonaldization: the Reader*. Thousand Oaks, CA: Pine Forge.
Smith, James K. A. (2006). *Who's Afraid of Postmodernism?*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번역서

- Bauckham, Richard. (2003). *Bible and Mission*. 강봉재 역 (2010). 『세계화에 맞서는 기독교적 증언』. 서울: 새물결플러스.
- Kavanaugh, John F. (2006). *Following Christ in a Consumer Society*. 박세혁 역 (2011). 『소비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 서울: IVP.
- Kincheloe, Joe. (2002). *The Sign of the Burger-McDonald's and the Culture of Power*. 성기완 역 (2004). 『버거의 상징: 맥도날드와 문화권력』. 서울: 아침이슬.
- Middleton, J. R. and Brian J. Walsh. *Truth Is Stranger Than It Used to Be*. 김기현 • 신광은 역. (2007).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 세계관』. 서울: 살림출판사.
- Ritzer, George. (1996). *The McDonaldization of Society*. 김종덕 역 (1999).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 서울: 시유시.
- Sine, Tom. (1999). *Mustard Seed vs. McWorld*. 현문신 역 (2001). 『겨자씨 VS 맥세상』. 서울: 예수전도단.
- Sire, James W. (2004). *The Universe Next Door*. 김현수 역 (2007).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서울: IVP.
- Taylor, Charles. (1991). *The Malaise of Modernity*. 송영배 역 (2001). 『불안한 현대 사회』. 서울: 이학사.
- Weber, Max. (1977). *Economy and Society*. 금중우 • 전남석 역. (1981). 『지배의 사회학』. 서울: 한길사.
- Wolters, A. and Michael Goheen. (2005). *Creation Regained*. 양성만 • 홍병룡 역. 『창조 타락 구속』. 서울: IVP.

한국문헌

- 신국원 (2005). 『니고데모의 안경』. 서울: IVP.
- 이승구 (2005).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서울: SFC.

정기간행물

- 박창호 (2008). “소비수단의 변화와 사이버공간의 소비문화 이해 : 맥도날드화에서 디즈니화의 사회로.” 『담론 201』 11(2). 43-63.